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단 출범

전북자치도, 현판 내걸고 체계적 대응 나서... 김관영 지사, “지속가능한 전북 발전 위한 도전 이어가자”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전담 추진단을 발족하고 유치 업무에 본격 돌입했다. 전북자치도는 청사 2층에 추진단 사무실을 마련, 현판을 10일 내걸었다.

지난 2일부터 올림픽 유치를 위한 업무를 본격화 한 전북자치도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TF 추진단’은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추진단장으로 TF 본부장과 평가대응과, 대외협력과 등 1추진단, 1본부 2과 4팀에 전문기관으로 전북연구원, 협력기관으로 도체육회가 참여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기존에 올림픽 유치신청서 제출 후 평가대응과와 대외협력과를 중심으로 평가, 현장실사, 불합 조성



전북특별자치도청사 2층 추진단 앞에서 열린 2036 하계올림픽 유치 TF 추진단 현판식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준비할 계획이다.

평가대응과는 내년 1월 6일부터 2일간 진행되는 현장 실사 대응과 함께 2월 28일 최종 개최지를 선정하게 될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프리젠테이션 제작 및 발표 준비를 담당한다.

대외협력과는 도민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내고 도내 14개 시군, 체육계, 유관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 긴밀하게

협력하며,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올림픽 유치 불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늘은 2036 하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위대한 첫 발을 떼는 의미있는 날이다”며,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북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을 위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민선 8기 전북 도전은 도전의 연속으로 덕분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차전지 특화단지과 기획발전특구 지정,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성공 개최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누군가가 올림픽 유치 도전을 무모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도전을 이어가야 한다. 열과 성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김명자 KAIST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은 10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전북 백년포럼’ 제20강에서 ‘헵프 경제 구축의 시대적 필요성: 전북자치도의 전략은?’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전북 의료용 대마산업 생태계 구축 유리”

전북 백년포럼 개최... 혁신적 산업 자원으로 세계 관심 커

의료용 대마(이하 헵프)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이 헵프산업 생태계 구축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명자 KAIST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은 10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전북 백년포럼’ 제20강에서 ‘헵프 경제 구축의 시대적 필요성: 전북자치도의 전략은?’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에서 김 이사장은 “헵프는 환경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갖춘 혁신적인 산업 자원”이라며 “전북의 여건이 좋다”고 밝혔다.

헵프란 카나비스(cannabis·대마 또는 삼) 속(屬)의 카나비스 사티바(cannabis sativa) 종(種)의 하나다. 향정신성과 중독성이 없어 의료 대마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 중이다.

김 이사장은 “헵프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친환경 작물로, 섬유, 식품, 바이오연료,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면서, “CO₂ 흡수와 토양 복원 능력이 탁월하며, 재배 기간이 짧고 자원 소비가 적은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특징점을 설명했다.

/이만호 기자

미국의 경우 50개 주 모두 헵프 재배를 합법화하여 산업용 헵프가 활성화돼 있다. 주 정부가 법률을 조기에 제정해 합법화를 서두른 결과다.

김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전북은 헵프 재배와 가공,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이같은 배경으로 “전북은 농업 중심 지역으로서 헵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미래 산업을 연결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법적 규제 완화와 지역 특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영미에서는 이미 산업용 헵프의 재배가 허용되고 있다”며, “전북의 특성을 고려할 때 헵프는 전북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 백년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혁신 스타트업 투자유치 IR 성황리 개최

전북자치도·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금융혁신기업 대상 투자 네트워킹의 장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10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금융혁신기업 대상 투자 IR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행사는 벤처투자에서 소외되기 쉬운 금융혁신기업들에게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전북의 금융생태계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북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역량을 키운 도내의 금융혁신 스타트

업 7개사가 참여했으며, KB인베스트먼트, 키움인베스트먼트 등 주요 벤처캐피탈(VC) 관계자들이 투자유치설명회(IR)를 통해 기업별 가능성을 심사했다.

투자자들은 IR 참여 기업들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는 동시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자문과 피드백을 제공하며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전북자치도는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2021년 국민

연금공단과 함께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를 구축하고, 공유오피스 등 금융 스타트업 지원시설을 마련했다.

특히, 수도권에 편중된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맞춤형 사업컨설팅과 사무공간 지원, 역량 강화 교육을 병행하며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번 행사에 참여한 (주)스톡과 (주)커먼시유나이티드는 본사를 도내로 이전하며 전북 금융

생태계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투자 IR 외에도 행사에서는 금융·창업·투자 전문가와 함께 지원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교류회 및 사업 점검 회의가 열렸다. 이를 통해 2025년 금융생태계 확장 목표를 논의하고,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네트워킹의 장이 마련됐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디지털 금융산업을 선도하는 금융도시로 성장하려면 금융혁신기업 발굴과 맞춤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전북이 금융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와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남원시-한미양행, 투자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가 10일 남원시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기업인 (주)한미양행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남원시청에서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와 최경식 남원시장, 정명수 (주)한미양행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한미양행은 최근 기능성화장품 사업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남원시 코스메틱 비즈센터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지리산에 자생하고 있는 천연물 소재를 원료화하여 기능성화장품의 연구 및 제조를 위한 공장시설을 구축 중에 있

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남원일반산업단지에 대규모 화장품 제조공장을 추가적으로 설립하여, 기능성화장품의 동남아시아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주)한미양행과 투자협약을 통해 기업의 사업계획과 부합된 남원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을 더하여, 기업과 지자체간 연대를 통해 지속적인 파트너십이 구축될 전망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정 제1목표는 기업들이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다”라며, “이번 협약을



전북특별자치도가 10일 남원시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기업인 (주)한미양행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통해 한미양행이 더욱 번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재

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자치도, 연말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집중 홍보

전북특별자치도가 연말을 맞아 도내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식 확산과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본부장 김민수), 전북농협(본부부장 임인)과 협력하여,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를 방문해 대면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홍보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제도 안내와 함께, 기부를 통해 고향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고, 기부자는 고향의 특산품을 담례품으로 받아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기념하며 12월 1일부터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추가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